



tvN '쌈니다 천리마마트' 엄태운

'동백꽃' 김강훈·'천리마' 엄태운 드라마 '아역천하'

'아역'이 드라마 마스코트로 뜬다.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의 김강훈(10)과 tvN '쌈니다 천리마마트'의 엄태운(7)이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각각 연기자 공효진의 아들 '필구'와 빼아족 '찌에'로 분해 성인 연기자 못지않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강훈은 극중 적지 않은 비중 속에 미혼모로 술집을 운영하며 각종 편견에 부딪히면서도 악착 같이 살아가는 공효진의 감정 변화 중심축 역할을 한다. 10살의 어린 나이에도 베테랑 성인 연기자들과 어우러지며 낯선 기세를 뽐낸다. 4살에 연기를 시작해 MBC '붉은달 푸른해'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쌓아올린 경력이 힘을 발휘한다. 오디션을 가뿐히 통과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공효진과 마주 앉아 서러운 신세를 탄탄하며 우는 명장면도 탄생시켰다.
'쌈니다 천리마마트'의 '빼아족' 족장 후계자인 '찌에'를 연기하는 엄태운은 온라인 상에서 인기가 높다. 무표정한 얼굴로 독특한 발음의 '빼아어'를 소화해 원작 웹툰 속 캐릭터를 빼닮았다는 평가다. 20일 방송에서 '빼아카트송'으로 대미도 장식했다. 덕분에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하루 만에 10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 관계자는 24일 "엄태운이 오디션 때 실제로 안무를 짜왔다"며 "굉장히 사랑스럽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 단번에 뽑았다"고 밝혔다.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로도 꼽히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에듀윌

수험생 학습계획 '슬럼프 극복법도 미리 설정해야…'

9급공무원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4987명을 선발한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에 19만5322명의 수험생이 몰려 3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9급공무원 시험에 많은 수의 수험생이 몰리고 있다.

방재안전직의 경우 19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교육행정직·시설직·마약수사직 등의 직렬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9급공무원 시험은 최신 정보와 각 과목별 최적의 학습 노하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험생에게 맞는 직렬 선택부터 각 과목별 학습방법, 수험 플랜, 슬럼프 극복 방법 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부터 올바른 학습방법과 계획으로 9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9급공무원 전문 교수진이 출연하는 단기 고득점 학습 전략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9급공무원 합격생을 대거 배출한 에듀윌의 9급공무원 국어·영어·한국사·행정학·행정법·사회 과목의 전문 교수진이 출연해 각 과목별 학습방법의 설정부터 단기간에 9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공개한다. 또한 에듀윌은 해당 방송의 사전 알람을 신청한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20명)을 제공하는 등 9급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해당 방송에 대한 세부사항은 에듀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디오를 점령한 아이돌 스타들



아이돌 스타들이 라디오 DJ로 잇따라 나서며 호평 받고 있다. 사진은 MBC 표준FM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는 산들(왼쪽)과 KBS Cool FM '불륨을 높여요'의 이수현.

통통 튀는 라디오…세대교체 OK

박경·이수현 등 新 라디오스타들 재치있는 입담·편안한 진행 장점 10대 청취자 확보…분위기 쇄신

신(新) 라디오스타가 뜬다!
아이돌 스타들이 라디오를 점령했다. 양희은, 최화정, 배철수 등 '전통의 라디오 스타'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아이돌 가수들도 이들 못지않은 입담과 순발력 등을 내세워 청취자와 만나고 있다. 그룹 블랙피의 박경,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의 이수현, 에이핑크의 정은지, B1A4의 산들, 비투비의 정일훈 등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새로운 라디오 강자로 떠올랐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의 세월동안 변함없이 라디오 부스에 앉아 청취자 사연과 음악을 들려준 '고수'들과 달리 이들의 최대 매력은 신선함이

다. 연료와 노련미는 찾아볼 수 없지만, 좌충우돌하며 동시대 청춘을 대변하며 이야기를 전한다.
박경은 평일 오후 8시 MBC FM4U(91.9MHz) '박경의 꿈꾸는 라디오'를 통해 프로듀서와 솔로가수에서 나아가 대중적 입지를 넓혔다. 라디오 특성상 말을 많이 하는 방식이 처음엔 익숙지 않았지만, 점차 안정된 모습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전하며 소통하고 있다.
악동뮤지션의 이수현도 정확한 발음과 뛰어난 말솜씨를 과시하고 있다. 매일 오후 8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하는 KBS Cool FM(89.1MHz) '악동뮤지션 이수현의 불륨을 높여요'를 편안한 진행 솜씨로 이끈다. 청취자들은 해당 게시판 등을 통해 "차분한 말솜씨에 편안한 밤을 즐기고 있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에이핑크 정은지도 올해 봄부터 새롭게 DJ로 나서 사랑받고 있다. 이미 최화

정(SBS 파워FM)과 김신영(MBC FM 4U)이 고정 청취자를 확보한 낮 12시부터 2시까지 KBS Cool FM '정은지의 가요광장'을 통해 차분하고 듣기 편한 목소리 톤으로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산들은 지난해 8월부터 매일 밤 10시 MBC 표준FM(95.9MHz)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26대 별밤지기'로 나서고 있다. 이종환, 김기덕, 이문세, 옥주현 등 역대 DJ에 견주어 부족하지 않은 음악적 지식으로 각 분야의 게스트들과 뛰어난 호흡을 자랑한다.
이처럼 아이돌 가수들이 비교적 진입 장벽이 높은 라디오에 잇따라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특히 10대 청취자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의 한 가지로 풀이된다. KBS 라디오센터 Cool FM 김홍철 부장은 24일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낮과 밤 시간대에 걸쳐 청취 연령대를 더욱 낮추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너무 잔혹한 '타인은 지옥이다'…15세 관람가 맞아?

살인 묘사에 인육 연상 장면까지 "잔인한 장면에 작품 의도 가려져"

"너무 섬뜩해서 끝까지 다 보지도 못했어요."
회사원 김지는 씨(30)는 방영 중인 OCN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를 보다 깜짝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말했다. 살인, 폭력 등 묘사에 "드라마가 이래도 되나" 싶었다. '인육'을 의식케 하는 장면까지 등장하자 김 씨는 "웹툰 원작이 유명해 기대했는데 잔혹함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계속 봐야하나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타인은 지옥이다'의 잔혹한 표현에 의

문을 던지는 시청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인마들이 사는 한 고시원에 들어간 청년이 겪는 기이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는 희생자의 치아를 뽑는 모습, 인육을 암시하는 장면 등 표현 수위로 인해 "15세 관람가가 적절한가"라는 질문까지 받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에도 관련 민원이 연이어 접수됐다. 방송통신심의위 전문판성채널팀 한상 차장은 "잔혹함을 문제 삼은 민원이 잇따라 심의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OCN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극중 고기는 인육이 아닌 설정이며 주인공 임시완의 불안함을 자극하기 위한 장치로 봐 달라"

고 해명했다. 이어 "극중 기괴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지옥 같은 현실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기획의도를 살리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라 전제하면서도 지나친 잔인함은 드라마의 핵심 주제를 흐트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드라마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장르드라마의 특성을 고려해도 시청자가 불편함을 느낄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도 "잔인한 표현이 자아낸 충격 때문에 잔혹한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가려졌다"며 "균형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15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3

임지연-곽시양 열애설 "사실 무근"

연기자 임지연과 곽시양이 열애설이 제기되자 두 사람은 소속사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인터넷 매체는 두 사람이 출연 중인 MBC 월화드라마 '웰컴2라이프'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임지연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 곽시양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은 친한 동료 일뿐"이라고 열애설을 일축했다.

승리, 원정도박 혐의 두 번째 소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29)가 경찰에 두 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24일 오전 10시40분경 서울 목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이날 "도박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불법 환치기로 마련했느냐"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같은 혐의로 입건된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안재현, 구해선 상대 이혼 소송 제기

연기자 안재현(32)이 아내 구해선(35)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안재현은 이날 9일 수원가정법원에 구해선에 대한 이혼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24일 알려졌다. 이에 구해선 측 법무법인 리우는 이날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돼 더는 어렵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안재현에 있다. 이혼소송의 반소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5월 결혼해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안재현과 구해선은 이혼 소송을 통해 공방을 벌이게 됐다.

편집 | 김대권 기자 bong82@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9급공무원 시험 학습 노하우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5					7	
4			3	5	1		8
		6		4		3	
	4			3			2
	9	7	6		8	1	4
	3			7			8
		4		1		8	
1			2	6	9		4
	2					1	

		8		7		1		
			6		2			
7		6		9		3		2
	2			3			5	
3		7	9		6	2		8
	8			4			1	
5		9		1		4		6
			4		5			
		2		6		5		

■ 스도쿠정답

6	1	9	8	4	5	2	7	3
4	5	2	6	9	3	8	1	7
2	8	7	1	5	4	9	6	3
9	8	5	4	2	6	1	3	7
8	4	1	8	2	9	7	6	5
7	2	6	9	5	1	4	8	3
5	6	3	2	4	7	1	9	8
8	7	2	1	5	3	6	4	9
1	3	4	7	1	8	5	2	9
1	8	5	6	9	7	2	4	3
7	9	8	5	2	4	3	6	1
9	2	4	7	1	8	6	3	5
8	1	9	7	4	2	5	9	6
8	4	2	9	5	6	7	1	3
6	5	7	1	3	8	4	2	9
2	8	3	4	6	1	5	9	7
5	7	6	2	8	9	1	3	4
4	9	1	3	7	5	8	6	2